

어명소 제2차관, “철도교통관제에 디지털 혁신” 강조 - 31일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 찾아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관제 당부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31일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전국 국가철도의 운행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디지털 혁신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 - 철도교통관제센터는 전국의 열차 위치를 실시간 감시하고, 출발, 정지 등 신호를 통제하는 철도 분야 교통경찰의 역할과 철도사고 및 장애 시에는 철도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한다. 이곳에는 관제사 300여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.

- 어 차관은 관제 업무가 철도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, “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제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”을 당부했다.
- 또한, 어 차관은 “철도교통관제센터에 AI,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디지털 혁신을 구현함으로써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 및 열차의 정시성 제고 등이 중요”하다며,
 - “그동안 관제사의 경험에 의존하던 수동적인 방식에서 AI,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관제체제로 전환하는 철도교통관제의 디지털 혁신은 시급한 과제”라고 강조했다.
- 아울러, 충북 오송에 건설 예정인 “제2철도교통관제센터가 ‘27년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 공사 및 관제시스템 개발을 철저히 추진”할 것을 당부했다.

2022. 5. 31.

국토교통부 대변인